가족계획연구원(1971~1981)

인구 및 가족정책 개발 연구의 태동

연구 관련 사업

가족계획연구원의 활동 가운데 연구활동 못지않게 큰 비중을 차지하였던 것이 훈련사업과 국제협력사업이었다. 훈련사업은 가족계획요원의 업무능력 함양을 통해 가족계획 서비스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국제협력사업은 사업 초창기 외원단체로부터의 재정 및 기술지원 확보, 그리고 1970년대 중·후반부터는 외국과의 사업수행 경험 공유를 통한 국제적 위상 제고 등에 공헌한 바가 큰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훈련사업

1960년대 가족계획요원에 대한 훈련사업은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전담하여 수행했다. 보건사회부는 훈련에 따르는 요원의 충원과 예산 지원, 훈련을 위한 교과과정의 승인 등 행정업무를 담당하고, 훈련과 관련된 실무는 민간단체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담당하였다.

그러나 1970년대에 들어 가족계획 종사인력에 대한 훈련은 대한가족계획협회에서 국립가족계획연구소로 이관되었다. 국립가족계획연구소는 1970년 7월 1일 스웨덴국제개발처(SIDA)의 원조로 조사연구와 사업평가 외에 가족계획요원을 훈련을 전담하는 기관으로 설립되었다. 그 후 국립가족계획연구소가 가족계획연구원으로 개편되면서 훈련사업도 가족계획연구원으로 승계되었다.

가족계획 종사요원 훈련사업을 가족계획연구원이 전담하면서 훈련방법의

개선, 교육 · 훈련 대상관리 개선, 교육과정 다원화, 다양한 시청각 교재의 개발 · 활용 등을 통해 교육의 질이 크게 향상되었다. 특히 스웨덴국제개발처의 지원으로 신축된 연구원 청사에 기숙사를 비롯한 현대식 숙식시설이 갖추어졌다.

» 교육 · 훈련의 기반형성: 가족계획요원 중앙등록제도 도입

가족계획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대두되었던 인력관리 상의 문제 중 하나는 가족계획 종사요원의 높은 이직률이었다. 예로서, 가족계획연구원이 출범하기 직전인 1970년 약 39%의 읍 · 면 계몽요원과 보건소 지도원의 약 49%가 이직하였다. 더욱이 당시 간호인력의 해외진출이 계속 확대되는 추세였기 때문에 가족계획요원의 이직현상이 더욱 심화될 전망이었다. 가족계획사업 추진에 중추적 역할을 담당했던 가족계획요원의 빈번한 이직은 가족계획사업 추진뿐 아니라 교육계획 수립에도 많은 지장을 초래하였다.

이러한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1972년부터 가족계획요원 중앙등록제도를 도입하였다. 가족계획요원 중앙등록제도는 가족계획요원의 동태를 신속하게 파악하여 그들의 특성에 따라 적절한 훈련을 실시하고, 사후관리를 통해 가족계획사업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고안된 제도였다. 이 제도에 따라 2,400여 명의 가족계획요원들을 대상으로 가족계획 분야 종사경력, 훈련이수사항 등을 기술한 개별 카드를 가족계획연구원에 비치 · 관리하였다.

이 제도의 도입으로 가족계획연구원은 일선요원의 동태를 상시 점검하여 적절한 훈련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었다. 특히 교육과정의 중복을 피할 수 있었으며, 신규 임용자는 조기에 훈련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었다. 요원 개개인의 신상을 고려한 차출로 교육 · 훈련의 낭비적 요소를 사전에 예방하는 이점도 있었다.

» 교육 · 훈련 대상의 다변화

1960~1970년대 우리나라 가족계획사업의 최일선 실무인력이었던 가족계획요원은 읍 · 면 계몽요원, 보건소지도원, 선임지도원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이들에 대한 교육 · 훈련은 임용 초기의 기초과정과 일정기간 후의 보수교육과정으로 이루어져 있었다.

우리나라 가족계획사업 일선에서 빼놓을 수 없는 또 하나의 일선요원은 모자보건요원이었다. 모자보건과 가족계획 간의 상호연계성으로 인해 사업 초창기부터 논의되던 모자보건 및 가족계획사업의 통합추진 문제가 1970년대에도 그대로 이어졌다. 이에 따라 1974년부터 모자보건요원에 대해 가족계획 교육·훈련을 실시하기 시작했다. 이후 모자보건 외에 결핵관리요원도 통합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가족계획사업뿐 아니라 보건사업도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가족계획과 모자보건, 결핵에 관한 전반적인 훈련을 모든 요원에게 실시하기로 하고 1978년부터 읍·면 요원에 대한 통합보건요원 훈련을 본격적으로 실시하였다.

이와 함께 피임시술 의사에 대한 교육훈련도 이루어졌다. 의사에 대한 정관수술 시술훈련은 1962년부터 대한가족계획협회의 주관 아래 실시되었으며, 1971년부터 가족계획연구원이 승계하였다. 1975년부터는 복강경에 의한 여성불임 시술훈련이 시작되었으며, 1978년부터는 '미니랩' 방법의 시술훈련이 부분적으로 실시되었다.

이와 함께 자궁내장치(IUD) 시술과 관련하여 1973년에 제정된 「모자보건법」에서는 간호사나 조산사가 특정한 피임법에 대한 훈련을 이수하면 IUD의 시술행위를 허용할 수 있는 길을 터놓았다. 이에 따라 1974년부터 간호사 및 조산사에 대한 IUD 시술 훈련도 실시되었다.

아울러 실무행정 담당자들에 대한 교육·훈련도 이어졌다. 1971년부터 가족계획연구원의 교육·훈련 과정에 보건소 가족계획 실무행정 담당자를 대상으로 하는 '보건행정요원반'을, 1973년부터는 '읍·면 행정책임자반'을 편성하여 훈련을 실시했다. 이밖에 시·도 단위의 가족계획담당 계장과 가족계획 전담지도원, 시·군 단위의 새마을과장, 군 내무과장, 부군수, 보건소장, 사회사업요원 등을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교육을 실시했다.

1977년부터는 가족계획사업을 새마을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데 필요한 강사 양성을 목적으로 '가족계획강사반'을 편성 운영하였다. 이는 각종 훈련기관에서 근무하는 교사와 지역사회조직의 가족계획관련 강사요원에게 정부의 방침을 이해시키고, 가족계획과 관련된 새로운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시도의 하나였다. 이후 특수사업요원에 대한 훈련과정으로 '사업장 보건관리 의사반', '노동청 상담요원반', '사업장 보건관리요원반' 등을 연이어 개설했다.

» 교육 · 훈련 내용의 다원화

교육 · 훈련 사업이 진행될수록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 가족계획요원의 직급, 근무지역, 직무기능 등 교육 · 훈련 대상자의 특성에 맞는 다양한 교과과정과 교재개발이 요구되었다. 이러한 요구에 부응하여 1975년부터 교육과정 개발을 위한 연구사업을 수행하기도 하였다. 이를 통해 통합보건요원의 기초훈련과 도시 · 농촌별 가족계획지도원에 대한 기초훈련 과정을 재개발했으며, 1978년에는 『직업훈련교육과정 개발을 위한 모형연구와 그 실제』라는 연구보고서를 발간하였다.

또한 시청각 슬라이드, 괘도 등 자체 제작시설을 만들어 개발하는 등 훈련 보조자료의 개발에도 많은 노력을 투입하였다.

» 훈련의 사후지원

각급 요원들이 사업일선에서 실무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자료를 보급하고, 새로운 정보를 제공해 줌으로써 교육 · 훈련을 이수한 후에도 간접적으로 지속적인 훈련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사후지원활동을 수행하였다.

» 문헌정보사업

가족계획사업이 확대되고 다양화됨에 따라 정보의 효율적인 유통을 위한 새로운 형태의 정보서비스 제공체계가 필요하게 되었다. 정보유통과 관련된 이러한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기존의 정보서비스 체계를 개선하는 한편, 정보서비스 기능을 담당할 전문적인 기구가 필요했다. 이에 따라 1974년 UN ESCAP 지원으로 개최된 '인구정보유통개선에 관한 워크숍'의 건의를 토대로 가족계획연구원 내에 '인구정보관리센터'를 설치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경주했다.

국제협력

가족계획사업 초기단계에서는 선진국이나 국제기구의 재정 및 기술지원이 사업추진에 큰 역할을 담당했다. 특히 1960년대 미국인구협회(Population Council: PC)와 국제가족계획연맹(International Planned Parenthood Federation: IPPF)이 제공한 기술지원과 재정적 지원은 사업기반을 다지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그 후 1960년대 후반에 시작된 스웨덴국제개발처(SIDA)와 미국국제개발처(US AID)의 지원을 통해 가족계획사업 연구 · 평가 및 훈련 전담기구 설립, 가족계획 관련 장비 및 약제 확보, 사업수행을 위한 인적자원 개발 등에 박차를 가할 수 있었다.

아울러 1974년부터 시작된 유엔인구활동기금(UNFPA)의 지원은 각종 시범사업을 통해 새로운 사업을 개발하는 데 기여하였다. 나아가 1970년대 후반기에는 국제인구문제응용연구위원회(ICARP), 캐나다국제개발연구센터(IDRC), 미국동서문화센터(EWC) 및 미국국제개발처(USAID) 등으로부터의 재정지원을 통해 가족계획사업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한편, 가족계획사업의 발전과정에서의 인적교류도 간과할 수 없다. 1960년대 가족계획사업과 관련된 주된 국제교류는 해외 장 · 단기 연수, 시찰 및 국제회의 참석 등을 통해 가족계획과 관련된 선진기술과 경험을 전수받고 해외정보를 수집하는 데 크게 기여했다.

그러나 1970년대에 들어서면서 국제간 인적교류 상황이 크게 변화했다. 그간 우리나라 가족계획사업이 이룩한 성과가 국제사회의 주목을 받기 시작하면서 우리나라 가족계획사업을 시찰하기 위해 가족계획연구원을 방문하는 외국의 가족계획 관련 담당자들이 크게 증가하였다.



1975년 Summer Seminar in Population

이러한 상황 변화에 대응하여 1970년대 후반부터 정규 및 비정규 훈련과정을 통해 우리의 경험과 기술을 공여해 주기 위한 국제교류 프로그램을 적극 추진했다.